

#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 책임있는 기초연구, 성숙한 연구문화로부터

- 자율과 창의의 기초연구, 책임있는 기초연구·성숙한 연구문화로 완성되어야
- 연구윤리 자가점검 지원, 평가위원 보상강화 등 정부의 뒷받침도 중요
- 제1~4차 전략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가칭)기초연구 질적 고도화 정책방향” 수립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붙임 1. 주요 참석자 명단)’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전략대화’에서는 「기초연구 이상(비전)」을 다룬 ‘제1차 전략대화(2.19)’ 및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개인 기초연구」와 「집단 기초연구」의 지원체계를 논의한 제2차(3.12) 및 제3차(4.2)에 이어 ‘책임있는 기초연구를 위한 성숙한 연구문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① 책임있는 기초연구와 연구문화의 중요성

먼저, 참석자들은 기초연구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탐구를 중시하지만, 기초연구가 단순한 지식 창출을 넘어 경제·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연구자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기초연구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 학문적 발전의 토대가 되고, ▲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 비판적 사고를 장려함으로써 연구자 성장 환경의 밑바탕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 2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참석자들은 연구자들이 기초연구 수행의 당사자로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연구과제의 평가 등에 참여함으로써 기초연구 행정을 뒷받침하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연구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연구과제 수행의 당사자인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기초연구 행정의 핵심인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 <연구수행 당사자로서의 역할>

<p><b>✓ 연구전문성 유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 지속적 향상</li> <li>연구 전 과정에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li> </ul>	<p><b>✓ 연구결과와 안정성 보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결과가 인간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에 기여</li> <li>연구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사전 예방</li> </ul>
<p><b>✓ 공공성 추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의 이익을 넘어 국가·사회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li> <li>연구 결과의 실용화 및 정책 반영</li> </ul>	<p><b>✓ 윤리적 연구수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데이터의 올바른 관리 절차(수집, 보관, 활용, 폐기 등) 준수</li> <li>연구 과정의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배제</li> </ul>

### <평가위원으로서의 역할>

<p><b>✓ 전문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최신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 수행</li> <li>연구계획서 내용과 전공이 너무 상이하여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회피 요청</li> </ul>	<p><b>✓ 공정성 유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 이해관계와 선입견을 배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진 회피</li> <li>패널내 모든 연구계획서에 대해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일관성 유지</li> </ul>
<p><b>✓ 비밀 유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과정에서의 획득 정보와 타 연구자의 연구 아이디어 및 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li> <li>평가 기간 중 피평가자와 직·간접적 연락 및 접촉 금지</li> </ul>	<p><b>✓ 성실한 참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단 소관 사업 참여·수행중인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평가에 적극 참여</li> <li>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의견체시로 연구계획 개선 및 연구 질적 수준 향상 기여</li> </ul>

## 3 책임있는 기초연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참석자들은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해 연구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려면 정부와 연구행정 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참석자들은 성숙한 연구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구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부실의심 학술지에 대한 자가점검지원체계 도입**과 **연구부정·부적절 행위 등에 대한 사례 위주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해 **충분한 평가기간**을 보장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걸맞는 적정한 보상\*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연구비 사용기준 개선, 간접비 사용용도 제한 완화 등도 연구지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연구자의 연구전념 환경 조성에 중요한 과제로 도출하였다.

\* 기초연구 현장(면접) 평가 수당 : ('09년) 35만원 → ('25년) 40만원

더불어, 참석자들은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강화, **연구자와 산업계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정부 및 행정기관의 역할 확대**도 주문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동안 양적으로 확대된 기초연구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 학회 활동을 통한 전략적 기초연구 주제 도출, ▲ 보다 내실 있는 연구자 주도의 국제협력 활성화 등 새로운 기초연구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지난 4차례의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붙임 2. 제1~3차 전략대화 주요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가칭)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26년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 편성 시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4차례의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모두 직접 주재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들을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도출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기초연구 전략대화’와 같은 새로운 정책 형성 모형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	책임자	과 장	송완호 (044-202-4530)
		담당자	주무관	김상영 (044-202-4552)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지척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참여 인사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주요 이력
정부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
	 송완호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장	-
학계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소장	· 現 전국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 회장 · 前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 前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 회장
	 성맹제	중앙대 물리학과	· 現 중앙대 연구부총장 · 前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 前 중앙대 자연과학대학 학장
	 박종훈	숙명여대 생명시스템학부	· 現 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 前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장
	 조광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 前 카이스트 연구처장 · 前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 부회장 · 前 서울대 의학과 교수
	 윤진희	인하대 물리학과	· 現 한국물리학회 회장 · 前 중이온가속기이용자협회 협회장 · 前 CERN ALICE 한국실험팀장
	 김동명	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 現 한국생물공학회회장 · 現 4단계 BK21사업 연구단 총책임자
대학(연구) 행정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 前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 · 前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 前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 前 경북대 공과대학장 · 前 경북대 첨단소재연구소장 · 前 경북대 산업대학원장
정책 전문가	 윤지웅	STEPI 원장	· 前 한국정책학회 회장 ·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자문위원 · 前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연구관리 전문기관	 이혁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 前 대한금속·재료학회 부회장 · 前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추진위원장 · 前 기초과학연구원 이사

# 붙임 2 제1~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주요 논의내용

## □ 제1차 기초연구의 본질에 충실한 기초연구진흥법 개정

### [ 기초연구 개정방향 주요 내용 ]

#### 01 기초연구의 재정의

- ✔ **기초연구**  
 기존 분야 중심 정의(기초과학 및 he분야 융합)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 및 특성 중심으로 재정의
- ✔ **원천·융합 연구**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원천·융합 연구 정의를 목적·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조항 신설

**現 기초연구진흥법**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 학제적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

➔

**개정(안)**  
 (제2조) 현상에 대한 탐구나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의 발견 자체를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론·지식을 위한 연구<sup>24.2</sup>

#### 02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체계 차별화

- ✔ **기초연구 Research**  
 지원체계 확대\* 개편(기존 1개장 → 변경 2개장)  
\* 기초연구인력양성, 연구장비 확충, 대학연구소 육성 등 기초연구 기반 관련 조항 세분화
- ✔ **기술개발 Development**  
 기술개발 정책 → 사업 추진 → 특별별 지원 체계화

**現 기초연구진흥법**  
 제2장 기초연구진흥  
 제3장 기술개발 지원  
 •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관리(신제)  
 • 기술개발 지원

➔

**기초연구진흥법 전부개정(안)**  
 제2장 기초연구진흥계획 수립 등  
 제3장 기초연구진흥사업 추진 등  
 제4장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정책 수립(개편)  
 •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 원천·융합기술개발 지원(신설)

#### 03 기초연구 기반 확충

- ✔ **정부·연구자 책무**  
 정부·기초·원천 연구 진흥을 위한 기본원칙\* 및 시책 마련 등 조항 신설, 연구자윤리적 연구 수행 및 성과확산 노력 등 조항 신설  
\* 연구자의 자율성의 존중, 인정적부자 지원, 젊은 연구자 성장 환경 조성 등(제3조)
- ✔ **정책 기반 강화 등**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 및 통계 조사 등을 규정

**現 기초연구진흥법**  
 별도 규정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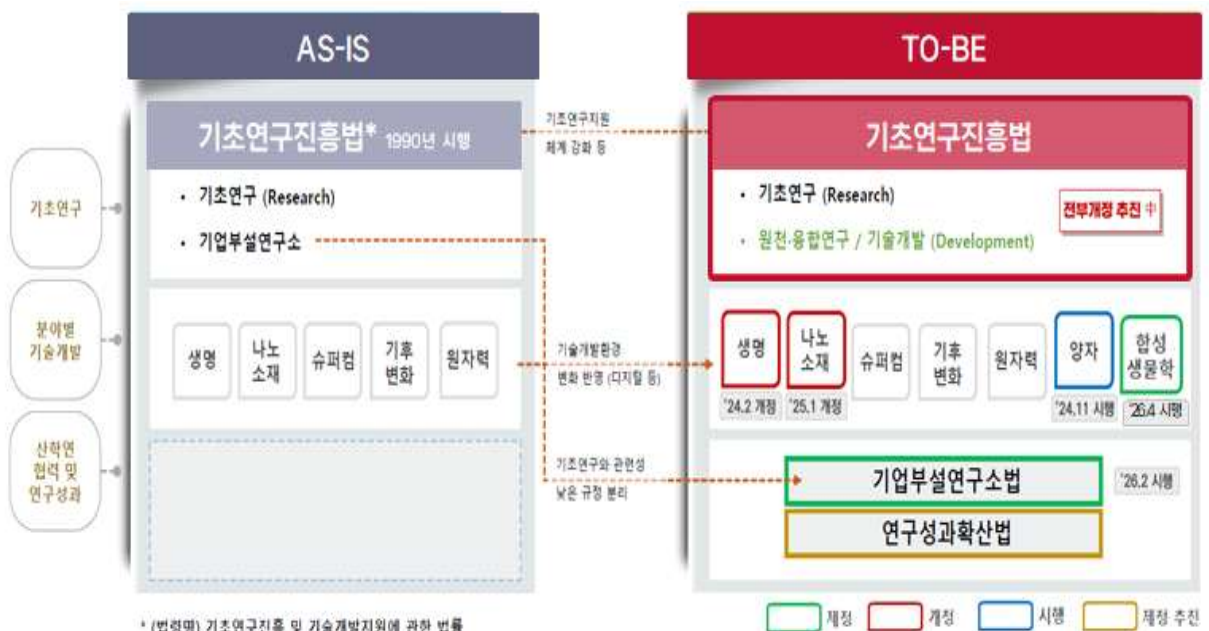
**개정(안)**  
 (제3조) 정부는 다음을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초·원천연구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up>24.2</sup> 1. 젊은 연구자가 근로·발수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제4조) 연구자는 기초·원천 연구 노력을 성실하게 몰입하여 연구하여야 한다.<sup>24.2</sup>

**現 기초연구진흥법**  
 별도 규정 없음

➔

**개정(안)**  
 (제9조) 정부는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작성하고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sup>24.2</sup>  
 (제28조)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sup>24.2</sup>

### [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R&D) 분야별 법령 구조 ]



□ 제2차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한 개인기초연구

[ 개인기초연구 개편의 방향 ]

**01 기초연구지원철학**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 → '축적' → '확장'에 충실

연구자 생애주기별 (연구인력의 성장)

↓

연구 심화단계별 (지식(학문)의 성숙)

**02 지식의 특성을 반영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개편**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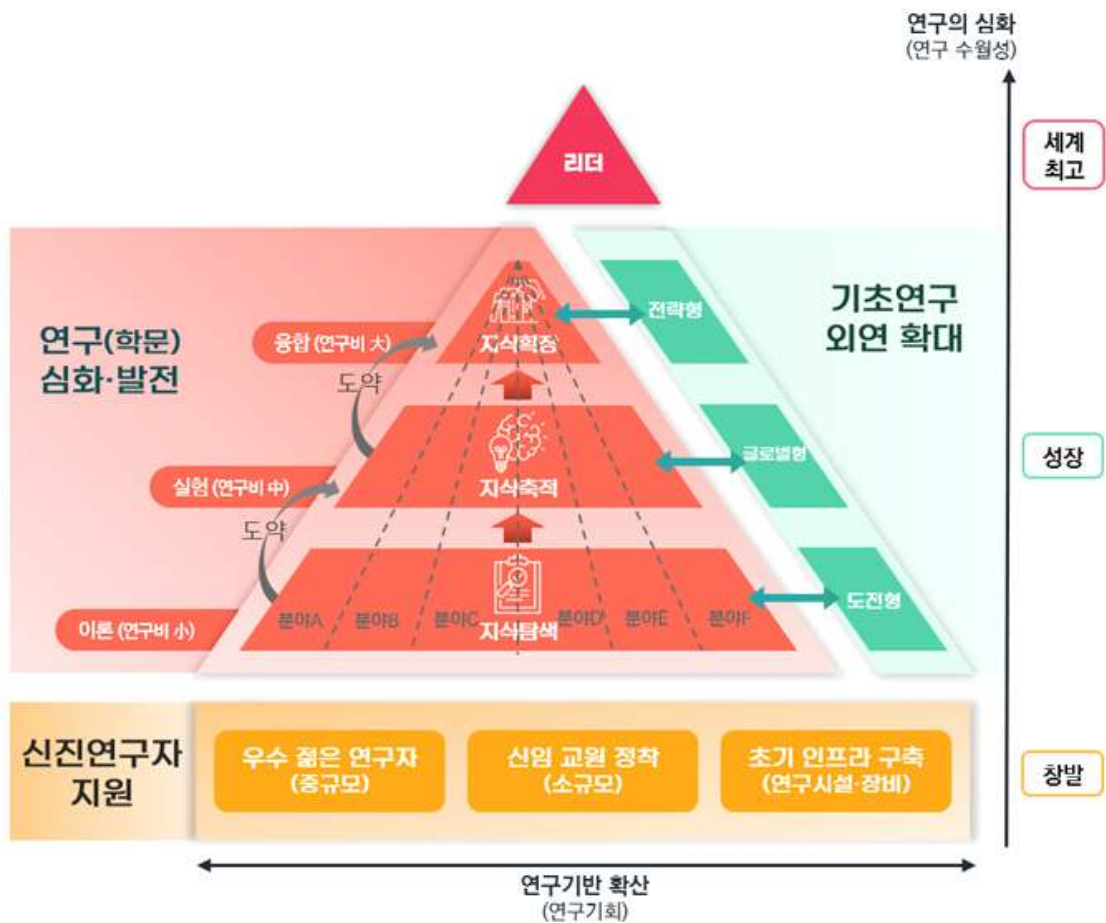
**03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 유연한 지원체계가 핵심**

목음 형태의 예산배분 방식

목음 예산안에서 자유롭게 유형별로 지원

**"과제수 단위 지원 탈피"**

[ 개편이후 이상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 ]



# □ 제3차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 [ 집단연구 지원체계 혁신의 방향 ]

**1 철학**  
집단연구답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집단연구의 개인화를 방지하는 리더십 강화 장치 마련  
- 정채된 연구비의 상향조정 / 참여인력 규제 완화 등 검토
- ✔ 집단연구 그룹 내 연구전임교원(Research Scientist) 확보로 연구조직의 안정성 확보
- ✔ 참여 연구인력의 '팀' spirit 강화 : 지식재산권, 연구 시설·장비 공유 등

**2 성장**  
집단연구 → 연구(그룹)의 성장과 대학 연구경쟁력 제고

<b>성장 Track</b>	기초연구실 → 선도연구센터 → 융복합 연구거점 (NRL2.0, IRC)	
<b>심화 Track</b>	기초연구실 (3년, 5억)	성장지원기초연구실 (2년) 후속지원기초연구실 (2년)
	선도연구센터 (7년, 연구비 상향)	후속지원선도연구센터 (3년) <small>* 후속지원 센터수확대</small>

**3 유형**  
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 내용 개선

✔ 기관 지원  
▷ 대학 연구의 수월성 즉 대학 연구조직(연구소)의 경쟁력

두가지 접근

**전략형**    NRL2.0  
-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대학의 육성 의지)

**진화형**    BRL → S/ERC & MRC  
→ IRC(3년)융복합 → (4년)임무 → (3년)거점화(연구소)

## [ 집단연구 지원체계 포트폴리오 ]

	목표	지원내용	(25년) 지원현황	지원구조	특징
국가연구소 ('25~)	연구인력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세계적 연구를 선도할 대학연구소 (기관)육성	연 100억원 10년 (3+4+3)	4개	NRL2.0	<b>기관(연구소)지원</b> ▷ 재원 운용 자율성 대(불록펀딩) ▷ 참여인력, 연구분야 등 제한 無 ▷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연계
혁신 선도연구센터 ('23~)	국가전략기술 분야 (12대)의 혁신을 주도할 대형-임무지향적 융복합 연구 집단 구축 및 지립화(사업화) 지원	연 50억원 10년 (3+4+3)	8개	1단계: 대형융복합 융합연구그룹 구성 2단계: 임무중심 임무정립 및 마일스톤 제시 3단계: 지속가능성 연구소화	<b>대·중·소 연구그룹 (공동연구)지원</b> ▷ 연구개발 목적에 따른 예산 운용 ▷ 참여인력 규모 제한 / 연구분야 제시 IRC: 13인 내외 / 12대 국가전략기술 SRC / ERC: 8인 이상 / 이학·공학분야 MRC: 8인 이상 / 의과학분야 BRL: 3~4인 / 심화·개척연구분야 ▷ 연구주제단기별 특성 반영
선도연구센터 ('90~)	학문 분야별 선도연구 그룹 육성 및 대형 연구 성과 창출	연 15~20억원 7년 (4+3)	126개	CRC    RLRC SRC    ERC    MRC 수    지    전    기    기    중    치    한 문    문    기    조    조    용    의    의 학    과    소    용    용    의    의    학 리    학    재    자    의    의    의    학 학    생    기    신    학    학    학    ... 학    계    재    자    학    학    학    ...	
기초연구실 ('09~)	소규모 공동연구그룹 지원으로 新 연구 개척 및 심화 지원	연 5억원 3년	399개	BRL 개척형    ⇨    심화형	